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7/8월 호
2026년



한국과 미국의 나라꽃, 무궁화와 장미 종이꽃 By Emily Paluska (관련기사 5 페이지)

차례 (CONTENTS)

표지: 한국과 미국의 나라꽃 | 에밀리팔루스카: 1
 한인회소식: 한인회장 인사말 | 윤태자: 2
 국내외 뉴스: 지난 5-6월의 주요 뉴스
 미중 정상회담, 핵추진 잠수함, 뉴멕시코 예비선거, 한국 지방 선거, 월드컵 개최, 최초의 조만장자, 미국-이란, 양해각서 서명, IAEA 사찰단 재수용,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 3
 국내외 뉴스: 베네수엘라 강진, 미셸 스틸 주한대사, 2026 FIFA 월드컵: 4
 COVER STORY: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미 식물원 주화(州花) 전시: 5
 지역소식: 6월 알버커키 시니어 피크닉: 6
 시: 뒤뜰에 핀 고향 | 캐티조: 6
 칼럼: 좋은 교회 좋은 가정 | 김기천: 7
 칼럼: 6.25 전쟁 소고 | 나정용: 8
 수필: 제3의 삶 | 이정길: 9
 수필: 훌륭한 사람 되어라! | 나정자: 11

오늘의 말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은혜를 망각한 칼날이 자신을 ... | 추석근: 10
 성경: 기독교윤리 (17) 산상수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 김민순: 12
 성지순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탐사 (5)
 밤빌리아 버가: 선교의 관문을 넘어 ... | 김민순: 14
 선교: 우리는 유대인을 어떻게 대하어야 할 것인가? | 신경일: 17
 영어이야기 (45): Remembering
 My Beloved Wife Leonoree | 이상목: 18
 과테말라 선교: 마야인의 친구 선교사 | 김장숙: 20
 수필: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사랑을... | 최현지: 21
 기도: 주일예배 대표기도문 | 이현숙: 24
 광고: 뉴멕시코 교회안내: 25
 뉴멕시코 한인 업소 안내: 26-27
 광고/관고안내/ 7-8월의 화단 관리 팁: 28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한인 회장 인사말

윤태자

제21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사랑하는 뉴멕시코 한인 동포 여러분, 푸르른 여름을 맞아 동포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5월과 6월 동안 뉴멕시코 한인회는 동포사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사와 의미 있는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5월 12일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모임에 참석하여 조영랑 이사장, 이영혜 부회장과 함께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6월 9일에는 6.25전쟁을 알리는 행사에 이사장과 부회장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에 소개하며 또한 한국의 전통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21일에는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때 참석하신 유나 Conaway 씨가 100불을 한인회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사마다 도와 주시는 임원진 이사진 그리고 봉사자들이 계시기에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과 8월에도 여러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24일에는 서남부한인회연합회 이취임식이 엘에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 뉴멕시코 한인회장이신 조규자 회장께서 서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으로 연임되시게 되어 매우 뜻깊고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서남부 연합회에서 각 한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7월 26일에는 한국학교 성인반 종강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회에서는 학기마다 종강식때 학생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준비하여 종강파티를 합니다.

8월에는 차세대 리더십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배우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8월 25일에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순회영사 업무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권, 공증 등 영사 업무가 필요하신 동포 여러분께서는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는 6월 5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으며, 가을에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다가오는 학기에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기대합니다.

뉴멕시코 한인회는 앞으로도 동포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서로 돕고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언제나 한인회를 믿고 응원해 주

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멕시코 한인회장 윤태자드림



6월 21일 한인회관에서 6·25전쟁 기념식

국내외 뉴스

지난 5-6월 주요 뉴스

5월18일 - **미중 정상회담**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역사적 합의”가 체결됐다고 하며, 그 내용에 관한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이 5월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양자 경제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와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백악관은 이들 기구를 이번 합의의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상업 분야와 관련해 설명자료는 중국이 자국 항공사들을 위해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처음 나온 대규모 구매 약속이다.

중국은 또 기존 대두 구매 약속에 더해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와 가금류에 대한 시장 접근도 복원되거나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설명자료는 또 중국이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통행료 없이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북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오는 9월 워싱턴 국민 방문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VOA Korea)

5월28일 - **핵추진 잠수함**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VOA의 핵추진 잠수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

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10월 한국 방문 당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재래식 무장탑재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6월 2일 - **뉴멕시코 예비선거**

덱 할랜드(Deb Haaland) 전 미국 내무장관이 화요일(6월2일)에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인 샘 브레그먼 (Sam Bregman) 버나리요 카운티 지방검사를 여유 있게 꺾고 뉴멕시코주 차기 주지사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덱 할랜드72.3%, 샘 브리그먼 후보 27.7%)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Governor)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전 리오란초(Rio Rancho) 시장인 그레그 헐(Gregg Hull) 후보가 4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구체적인 개표 결과를 보면 그레그 헐(Gregg Hull): 47% (약 56,600표) 더그 터너(Doug Turner): 37% (약 44,400표) 듀크 로드리게스(Duke Rodriguez): 16% (약 19,300표)이로써 그레그 헐 후보는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덱 할랜드(Deb Haaland) 전 내무장관과 맞붙게 된다.



6월 3일 - **한국 지방 선거**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본투표 당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투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극심한 정국 파문을 겪게 되었다. (위키백과)

6월 11일 ~ 7월 19일 **월드컵 개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2026년 FIFA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한국은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A조에 편성되었다. 미국은 파라과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튀르키예와 함께 D조에 편성되었다.

6월 12일 - **최초의 조만장자**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SpaceX의 기업공개로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trillionaire)가 되었다.

6월 19일 - **미국-이란, 양해각서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안정과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110일 간의 분쟁을 끝내는 중요한 평화 합의인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6월 22일 - **밴스 부통령 “이란, IAEA 사찰단 재수용 합의”**

밴스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 이끈 두 협상팀은 지난 21일 일요일부터 22일 월요일 새벽까지 스위스의 휴양 도시 뷔르겐슈토크에서 첫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밴스 부통령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다시 초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VOA Korea)

6월27일 - **미국,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한 이란에 ‘보복 공습’ ... MOU 체결 후 ‘첫 군사 충돌’**

미국 군 당국은 지난6월 25일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공격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26일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란이 싱가포르 선적의 ‘에버 러블리(Ever Lovely)’호를 드론으로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저장

국내외 뉴스

지난 5,6월 주요 뉴스

소와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드론 공격과 미국의 보복 공습은 양측이 MOU 합의를 이룬 이후 발생한 첫 번째 주요 충돌이다.

6월27일 -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최소 589명...3000명 부상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시간 24일 발생한 강력한 지진의 사망자가 계속 늘어 589명에 이르렀다.

텔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국영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부상자는 3천 명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구조 당국은 생존자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대규모 군과 민간 자원을 파견해 수색, 구조 작업을 돕고, 인도적 지원에도 나섰다.

미국 국방부는 남부사령부를 통해 구조에 필요한 함정과 항공기,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고,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규모 7.5와 7.2의 지진이 1분 간격으로 이어졌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북부 카리브해 연안의 라과이라 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며 붕괴된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이번 참혹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미국은 이 어려운 시기

에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함께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부는 즉시 수색구조팀과 의료 지원, 인도적 지원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VOA Korea)

미 상원, 미셸 스틸 주한대사 지명자 인준

VOA 뉴스
(2026.6.18.)
원문을 소개합니다.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17일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스틸 지명자 인준안을 호명투표에 부쳐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 스틸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대사로 공식 지명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4일 비즈니스 미팅을 열고 스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호명투표 끝에 찬성 14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스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장 서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부임하게 됩니다. 스틸 지명자가 부임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한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주한 미국대사가 됩니다.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이고, 하원의원 출신으로도 처음입니다.

스틸 지명자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처음 당선됐습니다. 이어 2022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2024년 선거에서는 600여 표 차이로 석패해 3선에 실패했습니다. 지

난달 20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스틸 지명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한동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축”이라며 “주한미군 2만8천500명과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공동 방위태세는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확장되는 사이버 범죄 활동, 심화되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됐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5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

2026 FIFA 월드컵 국제 축구 대회

2026년 FIFA 월드컵 국제 축구 대회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작하여 7월 19일 까지 아메리카 3개국(캐나다, 멕시코, 미국)에서 열린다. 금년으로 23번째 FIFA 월드컵이자 48개국 체제의 첫 번째 월드컵으로써 이 대회는 역사상 최초로 3개국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는 FIFA 월드컵이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1970년, 1986년 FIFA 월드컵에 이어 40년만에 세 번째로 개최된 FIFA 월드컵이며, 미국에서는 1994년 FIFA 월드컵에 이어 32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된 FIFA 월드컵이다. 캐나다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월드컵이다. 한국에서는 북중미 월드컵으로 불린다. FIFA 월드컵(World Cup)은 축구 국제 기구인 국제 축구 연맹(FIFA)에 가맹한 축구 협회(연맹)의 축구 국가대표팀만 참가하는 국제 축구 대회이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은 1930년에 첫 대회가 열렸다. 세계적인 종합 스포츠 행사 중 하나인 올림픽과는 달리 월드

COVER STORY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미 식물원 주화(州花) 전시에
한국인 예술가 기여**

컵은 단일 종목 대회다. 그리고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의 전통을 따라 한 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되지만, 월드컵은 한 국가(금년은 3국가)를 중심으로 열리며 대회 기간은 올림픽이 보통 2주 동안 열리는데 비해 월드컵은 약 한달 동안 진행된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A조 별 리그에서 1승 2패(승점 3점)를 기록하며 조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시작한 1차전에서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두며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2차전에서 멕시코에 0-1로 패하고,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3차전에서 남아공에 0-1로 일격을 당하며 토너먼트 직행이 좌절되었다.

이번 대회가 48개국 체제로 확대되어 각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도 토너먼트에 오른다. 따라서 한국은 조 3위지만 곧바로 탈락은 아니다. 한국이 8개 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경기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 축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D조에서 2승 1패(승점 6점)를 기록하며 조 1위로 당당히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다. 공동 개최국인 미국은 홈 팬들의 압도적인 응원 속에서 초반 2연승을 달리며 일찌감치 조 1위를 굳혔다.

1차전은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파라과이팀과의 경기에서 4-1 대승을 거두며 화려하게 출발했다. 시애틀 루멘 필드로 자리를 옮겨 치러진 호주와의 2차 경기에서 2-0 완승을 거두며 조 1위와 32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다. 3차전은 튀르키예에 2-3으로 아쉽게 패해 전승 가도는 마감했다. 향후 미국은 7월 1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의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32강전을 치르게 된다.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시애틀에서 16강전을 가질 예정이다. ■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식물원(U.S. Botanic Garden)이 오는 7월 4일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국의 50개 주와 미영토 준주들을 대표하는 공식 지정 꽃들을 식물원 곳곳에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전시하고 있다. 206년의 긴 역사를 가진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식물원은 다가오는 7월 4일 미국의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전시에는 에밀리 팔루스카(Emily Paluska) 작가의 종이꽃(Paper flower) 작품도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미국 식물원 전시의 핵심 예술 작품으로 사용했다. 실제 꽃이 피지 않는 시기에도 방문객들이 꽃의 형태를 볼 수 있도록, 에밀리 팔루스카가 세밀하게 제작한 56개의 모든 주와 영토 종이꽃이 전시되었고 작가 에밀리 팔루스카를 초청해 종이꽃을 직접 만들어보는 워크숍도 함께 진행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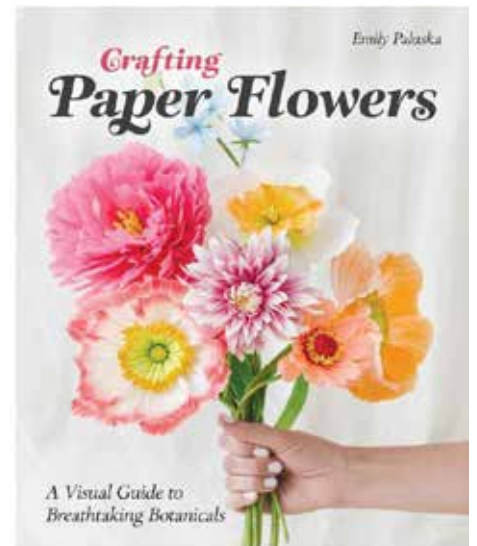
한국인이신 에밀리씨에게 광야의 소리에 한국의 무궁화와 미국의 나라꽃 장미를 개재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더니 승락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광야의 소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뒤에 한국어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지난달은 6.25한국전쟁의 달이고 8월은 8.15의 달이어서 무궁화를 보며 한국을 생각하고 오는 7월4일은 미국 독립 250주년이기도 화려한 미국의 나라꽃 장미로 표지를 꾸몄다. 실물보다 더 고운 종이꽃을 만드신 Emily Paluska님께 편집부에서도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한글문자를 7/8월호가 나오는 대로 함께 보낼 예정이다. ■



미국 식물원에서 발표한 주화(州花) 전시 포스터



주화 종이꽃 전시물로 캔자스주의 해바라기, 그뒤에 매사추세츠주의 메이플라워, 그옆에 뉴멕시코주의 유카, 다음으로 오하이오주의 카네이션이 보인다.



에밀리 팔루스카 작가는 종이꽃 만드는 비결을 소개하는 책도 출판했다. 그의 많은 작품은 www.instagram.com/reverypaperflora/에서 볼 수 있다.

지역 소식

알버커키 시니어(Hope Group)
6월 피크닉 모임

매월 세째 주일 목요일에 모이는 알버커키 감리교회 주최의 시니어 (Hope Group) 점심 모임은 5월 20일 피크닉으로 대체하여 엘레나 가에고스 오픈 스페이스(Elena Gallegos Open Space)에 있는 키와니스 (Kiwanis)에서 피그닉모임을 가졌다. 트램웨이와 아카데미로드 네거리에서 한블럭 북쪽에 있는 심스파크로드 (Simms Park Rd)로 들어가서 있는 심스 공원 (Simms Park)은 샌디아산을 배경으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640에이커 규모의 이 공원은 '오픈 스페이스 (Open Space)' 시스템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소이다. 해발 약 6,500피트 높이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많은 하이킹 트레일이 있어서 알버커키 노스이스트 지역의 뒷마당같이 이용하는 곳이다.

시니어 회원과 봉사자를 포함하여 38명이 모여서 점심식사 전에는 이영규 집사의 사회로 게임놀이와 년센스 퀴



즈등 으로 오락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상품이 게임 승패 결과에 재미를 더해 주었다.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봉사자 여러분이 준비한 불고기를 포함한 점심은 더 입맛을 돋구었다. 참가자 중에는 이곳을 처음 와 본다는

시

뒤뜰에 핀 고향

캐티 조

알버커키 NM
광야의 소리 독자

고향 코스모스 씨앗이 광활한 대지 뉴멕시코에 내려앉아,
낮선 햇살 아래 조용히 자리 잡았네.
먼땅, 먼하늘,철이 아닌 코스모스가 선물해 준 아련한
고향 추억들.

그러나,가슴 한편엔 햇살보다 깊게 스며든 그리움이 피었네.
서두르듯 꽃망울을 터트리고, 그작은 꽃잎마다 바람에 실려,
한들 한들 내 추억과 사랑을 흔들어 놓고 있네.
너무나 아련해 이 가슴이 빛으로 터질 것만 같아
눈물이 앞을 가리네.

바람에 실려 온, 먼 기억들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듯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뿌리는 늘 함께 한다는걸.
그리움도, 추억도, 사랑도 늘 함께 있음을.
고향에서 피던 그 모습 그대로 철이른 5월에
이 먼 뉴멕시코 땅에서 피어난 삼색 코스모스!
그 향기 속에 담긴 모든 사연과 이야기가
오늘도 내 마음을 따스히 감싸주네.
우리 집 뒤뜰엔 내 고향이 있네.



분이 여럿 있었다. “수 십년을 알버커키에 살면서 이런데가 있는 줄을 몰랐네요!”라는 분도 계셨다. 열심히 일하고 살아온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도시를 내려다보며 멀리 보이는 메사와 테일러 마운틴을 바라보는 엘레나 가에고스의 하루는 수고한 봉사자에 대한 감사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하루가 되었다.

다음 점심 모임은 7월 16일 목요일 11시30분 알버커키 감리교회의 친교실이다. 교회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뉴멕시코에 거주하시는 시니어 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모임인 Hope Group에 관한 문의는 전화 505-514-3063(최신옥 집사) 또는 VOICEofNM@gmail.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Hope Group은 다음 가을철 단풍 구경 피크닉으로 헤이메즈 -로스알라모스-치마요를 코치버스를 타고 돌아보는 관광 피크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무명의 어느 분께서 Hope Group 시니어 프로그램을 위해 버스 대절 비용을 도네이션 해주신 것도 감사할 일로 추가 되었다고 한다.

좋은 교회 좋은 가정



김기천
알버커키감리교회
담임목사

최근 들어 교회 들어설 때마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뛰어 놀고 교회 친교실에서는 교우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놓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모습들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주중에도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함께 모여 앉아 말씀과 친교를 나눌 수 있으며 주일 예배 후면 여선교회를 통해서 준비된 식사, 원하면 냄새가 물씬 풍기는 김치찌개라 할지라도 한껏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지요. 그중에도 당연 무더위가 한창인 이 여름철에도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최고이지요. 그래서 요즘 광고 중에 예배 시간에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은 긴 팔 옷으로 두툼하게 입고 오시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부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도행전이 아니라 가정행전이란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사실 교회 건물보다 그 건물 안에 있는 교인들이 행복해야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가정이라면 겉으로 보이는 값비싼 집

보다는 그 안에 살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정이 크리스천이 아닌 가정보다 더 영망인 경우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용서나 화해가 없이 반목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론 말 못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불만과 원망으로 분열된 가정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경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에 관한 말씀을 들어왔는데 가정이 영망이 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물론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요. 결혼시키는 부모님들은 누구나 새롭게 결혼하는 자녀가 새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맺어진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지요. 수도 없이 듣고 배운 말

씀인데 정작 가정을 들여다보면 크리스천 부부 간에도 성경말씀을 모르는 가정보다도 더 영망인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지요. 한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천국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천국의 모습과 천국에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지요. 처음으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은 그 아이는 여전히 천국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을 때에 아버지에게 물었지요. “아버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때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단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역시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들라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곧 축복 받은 좋은 가정이겠지요. 몹시 더운 이 여름철에 몸과 마음에 시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칼럼

6.25 전쟁 소고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6월에 들어서면 나는 6.25 전쟁 발발했던 1950년으로 되돌아 가곤 합니다. 그때 나는 딱 10살 짜리 천진난만한 소년 이었습니다.

“미군을 비롯한 UN군이 곧 도착할 것이고 우리의 우방국들의 막강한 반격으로 인하여 금세 평화를 도로 찾게 될 터이니 너희들은 한두달 동안만 피신하고 돌아 오라”고 하신 아버님의 준엄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형님들을 따라 반바지에 책 몇권만 가지고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떠나듯 아버님 친구분이 교장으로 계신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목달국민학교를 향해 길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큰 오산 이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끝마칠줄 알았던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곧 여러나라가 참전하게 되어 국제전의 성격까지 띄게되자 단기간에 끝나기는 커녕 3년 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숨 막히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이 전쟁은 민족 전체를 뒤흔든 재앙적인 전쟁이 되고 말았으며,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께 말할수 없는 큰 상처와 피해를 입혔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었던 평양에는 수백개의 교회가 있어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이 활동 하였음으로 전쟁전 북한지역은 한국 개신교의 중요한 중

심지 었습니다.

20세기 초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운동과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중심지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20세기초에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 밑에서 체험한바 있었던 소망을 이 전쟁을 통하여 재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난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는 것과 그런고로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것 이었습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두 번씩이나 이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하여 끈끈하게 사는 법을 배운 독특한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체험을 가슴에 품고 미국땅에 이민 온 우리는 세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악의 세력들로 해서 우리는 민족적 괴로움을 겪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으로 삼으셨던 것 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칼날 밑에서 36년간 압박과 핍박에서 해방 받자마자 숨 돌릴 사이도 없이 6.25전쟁으로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감정은 지쳐있고 믿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답을

구하였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며 오늘까지 이끄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세계선교를 맡기셨습니다.

John Wesley 에게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도록 인도하신 성령께서, Francis Asbury 에게 미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울수 있는 열심을 주셨던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민족에게 기도와 전도 중심의 신앙 전통이 미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도록 하였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 전쟁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후손의 가슴에 새기도록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유스럽게 성경을 읽고 예배드릴수 있는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제물로 얻어졌다는 점, 그리고 전쟁중 집과 가족을 잃어 버리는 말할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큰 힘이었던 영적체험을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 감사, 평화의 가치를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여러 민족에게 전하는 슬기로운 신앙인들이 되어 이 미국땅에 제5차 영적부흥운동을 이끄는 주역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

제3의 삶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플로리다 대학교 사회학과 명예 교수 Ray Oldenburg는 1989년에 발표한 그의 책 『The Great Good Place』에서 ‘제3의 장소 Third places’라는 말을 썼다. 가정이나 직장 밖의 사교적인 교제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비공식적인 장소를 일컫는다. 대화가 중심인 계획되지 않은 집회에서 지위, 계급, 인종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골고루 동등하게 해주는 곳이다.

지역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존속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뜻 깊은 곳 이어서 공공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다. 모이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해아릴 수 없이 많은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데에도 중대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혁명에는 목로 주점이, 프랑스의 혁명에는 카페가, 17~18세기 유럽의 사상 운동에는 런던의 커피숍이 제3의 장소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고라 광장에서 열린 정치적인 군중 대회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했다.

올덴버그는 오래 전의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특색 있는 장소들이 미국의 사회 풍경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런 공간들의 감소가 미국의 공동체와 문화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고립과 분열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느낀 것이다. 그의 걱정은 군 걱정이 아니었다. 커피숍, 경식당, 잡화상, 도서관, 공민관, 예배당, 사교 클럽, 동호회 등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한 지 오래다. 고도로 발달한 물질

문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 시간에 사치스러운 일에 생활비를 사용하도록 만든 결과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부하나 일상에서의 증가된 가사 부담을 피할 수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대신 끊임없이 스크린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2021년에 실시된 인구 조사의 시간 활용에 관한 결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삶을 통째로 바꿔 버리기 이전에 미국인들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이미 현저하게 줄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1990년에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사람들이 1%에 불과했는데 2024년에는 17%로 크게 증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고립이 일반화된 현상이 유행병 때문에 더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조사 결과가 지시하는 사회 및 시민 생활의 붕괴 현상은 실제로 아주 심각하다. 생활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서로 다른 연령, 배경,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주는 장소가 점차 사라져 간다.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도 어느 정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준다고는 하나 제3의 장소에는 비교도 되지 못한다. 그 결과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 초래하는 외로움이 마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어서 미국 공중 위생국의 의무감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적인 노출이 전반적으로 감소되

면 개인에게는 물론 민주주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투표자 등록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한 정당에 투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거주 지역에서 다른 정당에 투표한 사람들과 상호 작용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거리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자기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다르다면 교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결과 정치는 극단으로 흐르고,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은 타협할 줄을 모르면서 자신들의 어쭙잖은 원칙만 지키려고 애쓴다.

그러한 문제들을 모두 제3의 장소가 사라지는 탓으로 귀결 짓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만연한 스트레스와 고립 상태 그리고 공감 능력의 결핍 등에 대한 방어 수단이기도 한 정규적이고, 지역 사회에 봉사적이며, 비공식적이고, 즐거움이 예상되는 가정이나 직장 밖에서의 개인들의 모임이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때는 일찍이 없었다.

휴식 시간에 디지털형 소통 대신 대인적인 상호 작용을 가지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실생활에서 인간 관계가 주는 즐거움에 관한 공중 보건학적 연구의 결과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다시 일어서는 힘을 북돋우고 수명까지도 늘여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Adam Chandler는 『Drive-Thru Dreams』를 비롯한 몇 권의 책을 펴낸 작가이면서 뉴욕 타임즈와 월 스트리트 저널 등에 기고하는 기자다. 지역

오늘의 말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은혜를 망각한 칼날이 자신을 겨누다.

(오늘의 말씀)본문: 삼하 12: 5~7
사무엘하 12장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며, 동시에 가장 뼈아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성군이라 불리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은 끔찍한 범죄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하나님의 침묵, 그 무서운 기다림

성경은 다윗의 악행을 본 여호와와 의 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삼하 11:27).”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즉시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정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 자정의 기회: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무너진 양심을 회복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셨습니다.

- 영적 단절의 고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채 왕좌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메마르고 고통스러운지 다윗 스스로 체감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도 평안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그가 죄의 쓴 뿌리를 충분히 느끼도록 침묵의 시간을 두셨던 것입니다.

2. 비유의 거울: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우리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수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유일한 전 재산이자 가족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불같이 노하며 외칩니다.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는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작은 허물에는 정의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타인의 일처럼 객관화할 때는 누구보다 명확한 심판관이었으나, 정작 자기 영혼의 민낯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당신이 그 사람이라” - 무너진 양심을 깨우는 천둥소리

나단은 주저하지 않고 다윗의 가슴에 비수를 찌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한마디는 다윗이 1년 동안 쌓아 올린 가식과 방어기제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천둥소리였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받은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삼하 12:8)

하나님은 ‘부족해서’ 죄를 지었다는 핑계를 원천 차단하십니다. 죄의 본질은 결핍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배은망덕’에 있기 때문입니다.

4. 심판 너머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추석근

산타페 한인 교회
담임목사



다윗은 즉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변명하지 않는 이 짧은 회개가 다윗을 사울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죄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칼부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았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이레 동안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다시 아들을 허락하시니,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디디아(여호와께서 사랑하심)’라고 부르십니다.

- 회복의 증거: 솔로몬의 탄생은 다윗의 죄가 사해졌음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 반전의 은혜: 죄로 시작된 관계조차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맺음말: 우리 안의 나단을 마주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습니다. 남의 잘못에는 “죽어야 마땅하다”며 분노하지만, 자신의 죄 앞에서는 관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이토록 큰데,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느냐?”

<23 페이지로 계속 >

수필

훌륭한 사람 되어라!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1940년대 해방의 언저리에서 태어나서 마치 대하드라마의 주인공같은 세월을 살아 내느라 나름대로 사연이 다채로운 세대! 그 시달리던 것들을 싸악 떨쳐 버리지 못하는가 하면, 획~획~ 변하는 세상속도를 채 따라 마추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들이 제법 잘하는 것 중 하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주 그 때를 더듬어 찾아가고 또 한참씩이나 거기서 명상하곤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명상중 하나로 요즘같은 학교 졸업 씨즌이면 더 자주 듣게되고 하게되는 말이 ‘훌륭한 사람 되어라’ 였지요. 전후 눈에 보이는것 안 보이는것 다 무너진 상태에서 누구나에게 쾌히 합리적이지 못한 환경을 이겨내고자 요구되는 것이 무론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이었지 싶습니다.

어쩌면 그 또래 세대들은 미처 무엇이 훌륭한 것인지 채 알기도 전에 현재는 그저 그 미지의 미래를 위해 일등 수석을 해 내야 하던 숨가쁜 세대 - 만족할 겨를, 아니 만족이 뭔지도 모르는 세월을 살아 왔었구나 싶습니다. 일등이 되어야 하고 제일이 되어야 집안이 살고 가문이 서 가는 거였지요.

요즘은 교회이름들도 달라져서 인상적이고 특색있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지만, 얼마전 까지만 해도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교회이름들도 역시 ‘...제일교회’ ‘...중앙교회’ 등으로 교회 연륜을

대충 짚어보게 하는 것들 이었지요.

마찬가지로 ‘훌륭’ 이란 개념도 그 시대를 따라 조금씩 상향 조절 되어 가는 가 싶어 당혹스럽게도 당찬은 꿈도 꾸어 보게 합니다. 만추가 아닌 한겨울 설경을 이고 다니는 주제일지라도 감히 ‘훌륭’ 이란 테두리 안에 편입되는 꿈을 꾸어 보게 하는 인터뷰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초, 서울에선 2026년 호암상 시상식 이었습니다.1990년 삼성 창업주가 인재제일과 사회공익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과학, 의학, 공학, 예술, 사회봉사 부문 공로자들에게 시상하는 호암상 수상자들 발표가 있었고, 그 중 내가 보게 되었던 수상자 인터뷰는 사회봉사 부문- 소록도 한센인들을 치료해온 치과 의사 오동찬씨 이었습니다

그가 치과대학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으러 갔을때 맨 처음 눈에 들어온 순서는 국립 소록도 병원! 그것을 보자마자 벼락같이 머릿 속을 치고 떠오른 말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 사는데가 어디인줄 아니? 소록도 란다 소록도! “ 평소 늘 무심코 하시던 아버지 말씀이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심코 하셨던 아버지 말씀은 이미 다부진 꿈으로 자라고 있었던가 봅니다. 두번 생각할것 없이 소록도병원 으로 원서를 접수했고, 일반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한 이 병을 천별이

라는 편견과 오해로 가족도 외면하는 이곳으로 가려는 경쟁자가 하나도 없어 곧바로 합격!

집에 돌아와 이 일을 보고하니, 아무 말씀 없으신 아버지와는 다르게 말기암 투병중에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내 살 날이 얼마남지 않은 이 에미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 못 간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꼭 1년만 일하고 어머니께로 오겠습니다.” 하고 떠났던게 벌써 31년이 되었다는데.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끌어 오려고 소록도를 방문한 어머니께서는 차마 눈뜨고 제대로 볼수없는 한센병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치료하는 아들을 하루종일 지켜 보시더니 “어미 돌보듯 이 어르신들 잘 봐 드려라” 하시고 귀가 하신후 두달만에 돌아 가셨답니다.

이 한센병자들에게 제일 딱한 것중 하나는 먼저 아랫입술이 늘어져버려 노다지 침이 질질 흐르는 추한 모습에다 음식 흡입을 못 해 고생하는 모습. 이 입술 재건을 위해 수년 고심 연구 끝에 많은 이들을 수술해 주었던만 아무도 감사는 커녕 그저 ‘수고 하시랴요’ 한마디면 끝. 이유 인즉은 잠깐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바람처럼 떠나 갈 의사들에겐 우리들 한센인들의 진심같은건 필요치 않다는 거였답니다.

<13 페이지로 계속 >

성경

기독교윤리 (17) 산상수훈 마 6:9-13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1. 고통스러운 이름 야베스

사역을 하면서 가끔 행복하고 즐거운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의 이름이나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입니다. 몇 차례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며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특이한 이름이 있습니다. 숨겨진 이름이었는데 베스트셀러 책으로도 나온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9-10).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고생해서 지은 고통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고통스러운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야베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고통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이며 행복인지 모릅니다.

2. 먼저 구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제자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집을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최우선순위를 두고 구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10절 두 구절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에는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이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냥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십계명의 제3계명과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제3계명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름은 곧 그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의 앞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담긴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합니다.

3.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1-23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땅에서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그 땅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거룩

하신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땅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소서.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자기 이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평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한 말 한마디, 가정에서의 인내, 이웃을 향한 친절,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를 통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 앞에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

훌륭한 사람 되어라!

<11페이지에서 계속 >

천형이라 하며 친가족들에게서도 버림 받은 이들과 함께 하며 고름 질척거리는 살 속 깊숙히 응어리진 ‘한’을 받아 내주는 31년!

국립 병원이라서 공무원 대우를 받는 것 중 매달 5, 6만원씩을 떼어서 일년에 한번씩 캄보디아 같은 오지인 치료를 가서보면 5불정도에 60명 아이들이 한 끼 식사가 마련되더라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데 표창은 무슨 표창이냐고 막무가내 거부하는 오동찬에게 인터뷰하던 아나운서의 끝 말 ‘상금이 3억입니다’ 소리에 눈이 번쩍!

‘그 상 받겠습니다!’ 합니다. 소록도 뿐 아니라 5불짜리 한끼가 아닌 럭셔리 만찬을 맛 볼 캄보디아 오지 아이들의 놀란 얼굴들이 벼락같이 떠오르더라나... 할렐루야!

이 총각 선생님이 소록도 병원에 가기 2년전부터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전령같은 간호사 한 분이 일하고 있었으니... 이 어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말 할수 있을까! 이 둘이 결혼하여 딸 둘을 받아 큰 딸은 이미 한의사로, 둘째는 의대 본과 4학년으로 수학 중 이랍니다.

그 무시무시한 편견속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세상에서 제일 슬프고 외로운 이들을 벌써 오래전부터 은밀한 중에 소개해 오신 하나님! 오해와 편견에서 해방시키시고 넉넉히 영원을 살게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 ‘길’ 이셨습니다.

‘훌륭’이란 말을 거듭 다시 되새겨 보게 됩니다. ■

성지순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탐사 (5) 밤빌리아 버가: 선교의 관문을 넘어 회복의 지평으로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야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행전 13:13-14)

1. 사도 바울 선교의 전략적 전환지:
밤빌리아의 버가 사도행전 13장 13-14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 선교팀의 행보는 제1차 전도여행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대한 지리적·전략적 분수령입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Paphos)에서 출발하여 소아시아 본토인 밤빌리아의 버

가(Perga)에 이르는 여정은 직선거리로 약 185마일, 실제 항로로는 기상 조건에 따라 약 175~250마일에 달하는 광활한 해로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복음의 전초기지를 지중해의 폐쇄적인 구브로 섬 사역에서 로마 제국의 내륙 심장부로 확장하겠다는 사도 바울 선교팀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안탈리아(Antalya, 성경의 명칭은 앳달리아 Attalia) 동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버가는 소아시아 내륙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적의 관문이었습니다. 본 탐사 보고서는 밤

빌리아의 버가를 중심으로 성경 기록의 지리적·역사적 실체를 규명함과 동시에, 해안 평야의 안락함을 상징하는 버가에서 해발 1,100m 고원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타우루스 산맥(The Taurus Mountains)의 험난한 지형적 난관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화려한 대도시 버가의 위용 이면에 숨겨진 물리적 위협과 사도 바울 선교팀의 전략적 선택의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선교팀 내부에 발생한 균열과 회복의 이야기를 역사 지리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림 1 ·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경로 (출처: ConformingToJesus.com)

2. 밤빌리아 버가의 지리적 입지와 고고학적 위상

밤빌리아 버가 탐사의 첫 단계로, 사도 바울 선교팀이 마주한 버가의 독특한 지리적 입지와 고고학적 위상을 우선 검토합니다. 밤빌리아 평야의 핵심 도시였던 버가는 해안에서 약 12마일 내륙에 위치하여 지중해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케스트로스(Cestrus, 현 아크수 강 Aksu River)를 활용해 해상권과 긴밀히 연결된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버가를 경제적 풍요와 군사적 견고함을 동시에 갖춘 메트로폴리스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림 2 · 밤빌리아 버가는 내륙 도시였으나 케스트로스강을 통해 지중해 해상권과 연결되었다.

1946년부터 시작된 체계적인 발굴은 버가가 로마 제국 안에서 누렸던 문명적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특히 도시의 남쪽을 지키는 헬레니즘 성문은 당대 건축 공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견고한 석회암 석조로 구축된 3층 규모의 웅장한 원형 쌍탑은 압도적인 보안성과 위엄을 과시하며, 두 탑 사이에 형성된 말굽형 안뜰은 외부 세계에서 도시의 공적 공간으로 진입하는 방문객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성문을 통과하면 나타나는 12,000석 규모의 거대한 경기장(Stadium)과 화려한 열주 대로, 그리고 도시 중앙을 관통하며 흐르는 정교한 수로 체계는 이곳이 헬레니즘 문화의 정점이자 안락한 로마 제국의 문명 세계였음을 입증합니다. 도시가 제공하는 이러한 시각적 압도



그림 3 · 버가의 열주 대로(Colonnaded Street)와 중앙 수로. (버가 현지 사진)

와 안락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교팀은 지체 없이 더 험준한 내륙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는 버가가 지닌 문화적 정체성이 다음의 중요한 선교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과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시사하며, 두 도시의 구조적 대조를 통해 그 선교 전략적 배경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3. 밤빌리아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의 대조

역사적으로 분석할 때,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의 차이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버가가 보존 상태가 뛰어난 극장과 경기장을 중심으로 헬레니즘 문화와 아르테미스 숭배가 지배하던 전통적인 메

트로폴리스였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철저히 로마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로마 식민지(Colonia)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도시 계획의 두 간선도로, 곧 남북 방향 주축인 카르도(Cardo)와 동서 방향 주축인 데쿠마누스(Decumanus)가 교차하는 격자형 도로망, 아우구스투스 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의 통치 이념을 전파하는 '제왕 업적록(Res Gestae)' 비문을 통해 로마 제국의 축소판과 같은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규모가 큰 도시를 찾은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행정망과 군사 도로망이 집중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으로서,



그림 4 · 비시디아 안디옥의 로마식 포장도로와 스타디움 (비시디아 안디옥 현지 사진)

버가보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현재까지 도시 면적의 일부만 발굴된 상태이므로, 특정 유적(예: 대형 경기장)의 부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직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격자형 가로 체계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숭배 시설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두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차이는 분명합니다. 버가의 문화적 장벽을 넘어선 선교팀 앞에 놓인 실제적인 물리적 위협은 타우루스 산맥의 험로였으며, 특히 로마 제국이 건설한 군용 도로 ‘비아 세바스테’를 따라가는 여정은 그 자체가 생존을 건 시험대였습니다.

4. 지형적 실체 검증: 비아 세바스테와 고원의 험로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여정은 기원전 6년에 완공된 로마의 군사 도로 ‘비아 세바스테(Via Sebaste)’를 주축으로 삼았습니다. 이 도로는 당시 로마 제국이 타우루스 산맥 고원에 자리 잡은 호전적인 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구축한 최신향 군사·행정 도로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은 3,000m 이상의 타우루스 산맥 정상 을 넘는 길이 아니라, ‘클리막스 고개(Climax Pass)’를 거쳐 약 100마일의 고원 지대를 돌파해야 했습니다.

특히 석회암 지형의 좁은 협곡은 집중 호우 시 상류의 물을 급격히 하류로 집중시켜 갑작스러운 강의 범람을 일으키는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훗날 회고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고후 11:26)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좁은 협곡의 범람과 험준한 지형을 은신처 삼은 산적 때라는 실체적 배경에서 기인했음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환경적 압박과 기상 이변에 따른 생존의 위협은 선교팀 내부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결



그림 5 · 비아 세바스테가 통과한 타우루스 산맥의 고원 지대.

정적인 변수가 되었으며, 예기치 못한 마가 요한의 이탈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5. 마가 요한의 이탈과 회복

밤빌리아 버가에서의 지체와 내륙의 험로 진입 결정은 사도 바울 선교팀 내부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에 익숙했던 마가 요한에게, 밤빌리아의 고온 다습한 기후와 그 앞에 놓인 100마일의 타우루스 산맥 등반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버가가 상징하는 ‘안정’과 타우루스 산맥의 험난한 여정 사이의 간극은 마가의 한계를 자극했습니다.

다만 본문은 이탈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설명은 모두 추론임을 전제합니다. 학계에서는 윌리엄 램지(William Ramsay, 1851-1939)가 제기한 사도 바울의 ‘말라리아 감염설’을 통해 당시 정황을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마가의 이탈 이유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이 사건은 단순한 환경적 요인을 넘어 사명과 인격의 시험대로 다루어집니다. 주목할 점은 마가의 중도 포기가 영구적인 단절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마가의 동행 문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다만 성경은 이 결별에서 어느 한쪽을 옳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로 떠나 두 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결국 사도 바울로부터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딤후 4:11)이

라는 평가를 받으며, 사역적 역량을 성숙시킨 모습으로 복귀합니다. 버가에서의 이탈은 당시에는 뼈아픈 시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복음의 지평을 넓히고 사명자를 연단시키는 역설적인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6. 결론: 험로를 넘어 확장되는 복음의 지평

밤빌리아 버가의 탐사 결과를 종합할 때, 버가는 선교의 관문인 동시에 사명자의 본질을 시험하는 장소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본 탐사가 살펴본 고고학적 데이터는 누가가 기록한 성경 본문의 치밀한 신뢰성을 뒷받침합니다. 구브로의 바보에서 직선거리 약 185마일의 해로를 거쳐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 선교팀이, 기원전 6년에 구축된 비아 세바스테의 험로를 따라 해발 1,100m 고지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한 행보는, 로마 제국의 핵심 플랫폼으로 진입하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선교 전략적 용기였습니다. 비록 버가에서의 지체와 마가의 이탈은 당시 선교팀에게 커다란 좌절로 다가왔겠으나, 고고학적·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멈춤이 아니라 ‘더 나은 확장’을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버가라는 시련의 관문을 통과했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적 성취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으며, 한때 실패했던 조력자 마가는 유익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버가’라는 정체기 속에서 고원의 험로를 마주한 이들에게, 바울 선교팀의 발자취는 분명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문명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위험이 상존하는 내륙을 향해 전진을 선택할 때, 그 너머에는 반드시 예비된 회복의 지평과 더 큰 사명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험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향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명의 지평을 넓히는 강력한 용기를 촉구합니다. ■

선교

우리는 유대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How do we confront the Jewish people?



신경일

국제신학원
명예학장
전 Chaplain, UNM
Medical Center

수년전에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 Poll 이 있었는데 antisemitism (반유대주의) 이 53%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잘 모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딤후서 3장 1월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 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이며 우리는 이러한 종말 (end time)에 살고 있음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Christian) 들은 살전4장 16,17절” 굳세게 믿음으로 “그후에 우리 살아 남은자도 저희의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유대인은 독특한 민족으로 온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에 7백만 , 미국에 6백만으로 제일 많고 그 외에 유럽, 러시아, 남아메리카 외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족으로 세계 2차 대전후에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은 유대인들의 공로와 헌신으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금융계, 교육계, 체육계, 엔터테인먼트, 최첨단 과학분야,

군사, 의학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6백만 유대인 가운데 약 25만명이 크리스찬 이라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온 세계에 디아스포라(Diaspora) 유대인 (8백만 추산) 을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알리야 (Aliyah) 작전에 우리는 지원하고 서포트(Support)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Titus) 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 되었고 제2 성전도 완전히 파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재탄생시에는 하나의 기독교 교회(Christian Church)도 없었는데 75년이 지난 2026년에 256개의 기독교 교회가 생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로마서 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성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14일 말씀 대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고 둘째는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 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주의 이름으

로 오시는 이여 하고 있으니 (히브리어로 Baruch Hara Beshem Adonai) 예수님이 곧 재림 하실 것입니다. 이사가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은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 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 하리 로다 (시 122:6) 중동전쟁이 속히 끝나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신경일 목사 드림

To English speaking reader !
Psalm 122:6 says.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ose who love you be secure.”

We continue to pray for Israel and stand with Israel.

Jewish nation Israel and gentile nation Korea will become one new man out of two and fulfill the commandment of God.

May God’s blessing, hope, peace and joy will be upon you & your family.

Paster K. Shin
from New Mexico



영어 이야기

영어이야기 (45)

Remembering My Beloved
Wife Leonore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아내가 세상을 떠난지도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Cremation(화장)을 한후 재(ash)는 Heart모양의 Urn에 보관하여 TV옆에 놓아두고,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은퇴하면 New Mexico로 가서 살자던 저에게 두말 없이 따라와준 아내에게 새삼 감사 할 뿐입니다. 이곳으로 은퇴한



후, 아내는 아직 젊다며(당시 64세), Tierra Antigua Elementary School에서 폐질환으로 그만둘때까지 2년간 근무하여, 은퇴를 두번 한셈입니다. 그후 여러지병으로 인해 편치않은 생활로 남은 생(生)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의식이 없어 제대로 말도 나누지 못해, 제가슴에 평생지고갈 마음의 고통으로 남아있습니다. 동서 배경이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사랑과 믿음위에 가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항상 모자란 숨결의 아내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지 못한 제자신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제 이름을 항상 한글로 쓰던 아내는, 한국의 장독대와 생선전, 해물전, 잡채, 불고기, 군만두, 참외를 좋아했습니다. 시골 친척집에 들려 처마 끝에 마늘을 달아 말리는 모습도 보며, 부모님 묘소로 가는 질퍽한 눈두렁길을 바지가랭이를 올리고 같이 걷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가르쳐준대로, 어머님께 한



국식 인사를 드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 한국요리책을 구입하여 잡채도 만들곤 했는데, 간 맞추기가 어려운 탓인지 몇번 시도후 더 이상 만들진 않았습니.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or grade school) 선생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동화인 “꽃감과 호랑이” 이야기를 교실에서 들려줄때면, 저는 꽃감(dried persimmon)을 사들고 학교에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같이 맛있게 먹곤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차 잊혀지는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래도 잊혀지지않는 추억들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며시 와닿습니.

아내의 사인(cause of death)을 보면, 폐(lung)에 관한 여러질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cardio respiratory arrest”(심폐정지: 심장과 폐기능이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심장전문의를 뜻하는 Cardiologist에서 보듯이 cardio는 심장을 뜻하는 그리스어 접두사 입

니다. Cardiovascular는 심(장)혈관, 쉬운말로 표현하면 heart + blood vessel이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의학용어가 한자어(漢字語)이듯이 영어도 뜻글자에 해당되는 라틴어 또는 그리스어에 기원을 둔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의학용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용어는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글로 표기된 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맥”이란 말을 처음 들으면, 동맥/정맥 할때의 정맥과 관련이 있는 용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한자로 쓰인 不整脈(부정맥)을 보면, 가지런하지않은, 즉 고르지않은 맥박이란 뜻을 알게됩니다. 성경의 Lord's Prayer를 “주의 기도문”이라 하지않고 “주기도문”으로 쓰는 바람에, 말할때 “주기도문”으로 발음해 처음 들으면, 무슨 도문인줄 착각하게 됩니다. Respiratory는 호흡(Breathing)에 관련된것을 나타내며, “Respiratory failure”는 호흡기능상실, 즉 혈액속의 산소농도가 위험할정도로 낮아지거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상승하는 상태인 호흡부전(不全)을 뜻합니다. Respiratory disease는 호흡기질환이 되겠습니다. “arrest”는 구속하다의 뜻을 잘 알고 있는데, 의학에서 정지 또는 멈추다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The police arrested her for drinking and driving.”(경찰은 음주운전으로 그녀를 구속했다: 구속되면 평상시 하던일이 멈춥니다). Cardiac arrest는 심장이 갑자기

기 멈춘상태, 즉 심(心)정지입니다. 필자는 맥박(pulse)수가 정상치인 60~100보다 낮은 53정도인데, 낮은 심박수는 느리다의 뜻을 가진 접두어 “brady”를 사용하여 “bradycardia”라고 합니다. 호흡(breathing)이 느린것은 “bradypnea”, 호흡곤란은 “dyspnea”입니다. “pnea”역시 그리스어가 어원으로 숨, 호흡을 나타냅니다. 잘때 코를 막고 있는 사람은 수면중, 무호흡증에 걸릴 확율이 많은데, 수면중 무호흡증을 sleep apnea라고 하는데, 이런분들은 CPAP이라고 하는(공기를 잘통하게 함), 코와 입을 cover하는 마스크를 쓰고 잠을 잡니다. 무호흡증은, 없다는 뜻의 접두사 “a-”를 앞에 붙여 호흡이 없다는 뜻으로 “apnea”라고 합니다.

두번째 사인으론 “Interstitial lung disease, acute on chronic” (만성 폐 질환의 급성악화) 인데, “interstitial”은 접하기 어려운 단어로 세포(cell)나 조직(tissue)사이의 조그마한 틈새에 무엇인가 있을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acute”는 날카로운것을 뜻하는데, 의학에서는 급성의 뜻으로 사용되며, 수학에서 acute angle은 90도 보다 적은각(예각)을 뜻하며, 90도 보다 크고 180도 보다 적은 각은 obtuse angle(둔각), 90도 직각은 right angle입니다. Chronic은 “오래끄는(long duration)”의 뜻으로 우리말의 고질적, 만성적을 뜻합니다. “chronic disease” (만성질환), “chronic money problems” (고질적 돈문제), “Chronicle”은 “긴 시간을 나타내는 역사, 연대기”를 뜻하므로 성경의 역대기는 “The Chronicles”, 연대기 기록들을 모은것이라 복수로(Chronicles) 표기되어 있으며, 내용이 길어서 상하 두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신문사 이름에도 많아 예를 들면 San Francisco의 유력지 “The San Francisco Chronicle”이 있습니

다. Chronicle의 어원, 역시 라틴/그리스어로 time을 뜻하는 chronicus/khronos에서 나왔습니다. 폐에 염증이거나 손상이 반복되면서 정상조직이 딱딱한 섬유조직으로 바뀌는 Fibrosis에 시달려온 아내이기에 마음이 아픈데, Fibrosis는 섬유화로 번역되며, 섬유를 뜻하는 fiber(fibre)와 병리적 상태나 과정을 나타내는, 즉 질병상태나 기능적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 -sis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Sclerosis는 신체조직이 단단해진 경화증, Diagnosis는 “진단”의 뜻인데, Diagnosis의 “Dia-“는 “~을 통하여”란 접두사로, 지름을 뜻하는 Diameter는 “가로질러 재다” 즉, 가로질러 측정한 거리란 뜻입니다. “gno-”는 지식, 앎의 뜻이므로 Diagnosis는 “지식을 통하여 아는 과정”, 즉 “진단”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Gnostic은 특히 영적진리를 아는 사람을 지칭하여 지식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 없다는 뜻의 접두사 “a-”가 붙어 “Agnostic”은 지식이 없는 자 (특히 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없음)의 뜻인데, 신의 존재를 도저히 알수없다는 불가지론자(不可知論者)의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세번째 사인은 “Respiratory failure” (호흡부전), “pneumonia”(폐렴), “Congestive heart failure” (심부전: 혈액이나 체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혈관에 몰려,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는 상태), 그리고 “Coronary heart disease” (관상동맥질환)입니다. 동맥이 심장을 왕관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관상동맥(coronary artery)이라 하는데, Corona-19도 virus모양이 왕관모양의 돌기가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Congestive는 몸에 체액이 쌓이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로인해 심장이 제대로 뛰질 않습니다. 혈액순환(blood circulation)이 잘되지 않으면, 체액이 폐나 다른 장기로 들

어가거나 다리가 붓기도 합니다. 출퇴근시 자동차가 너무 많아 길이 막히면 “Traffic congestion” (교통체증), 가슴이 답답하게 막히는 증상은 Chest congestion입니다. 주로 기관지에(bronchi) 점액이 쌓여 생깁니다. 폐(Lung)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 안에 염증과 고름이 차서 호흡곤란이 되는 병이 우리가 잘 아는 폐렴(pneumonia)입니다. Pneumonia도, 그리스어(Greek)가 기원으로 “pneumon”은 lung, “ia”는 질환(disease) 또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ia”가 들어가는 병명(또는 상태)을 보면 “insomnia”(불면증), “hypothermia”(저체온증)를 들수있습니다. 우리가 맥박을 짤때는 힘찬 동맥(動脈)을 짭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vein)은 맥박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천천히 조용히 흐릅니다. 그래서 정맥은 고요할 정(靜)을 사용하여 정맥(靜脈)이란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는 라틴어(또는 그리스어), 한국어는 한자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의학, 기술용어를 표현합니다. 배달(delivery)속도가 세계최고인 우리나라의 택배란 말도 집으로 나르다(배달)의 뜻으로 한자어(漢字語)인 택배(宅配)는, 순수 우리말로 하면 “집으로 가져다 주기”가 되겠습니다. 고요할 정(靜)을 사용한 단어에 정물화(靜物畵)는 미술의 한유형으로, 움직이지않는 사물을 주로 그리므로 Still life라 하는데, 그리는 대상은 대부분 과일, 꽃, 도자기, 채소, 식기등입니다. Still은 정지한, 움직이지않는 의 뜻으로, “Still waters run deep.” (잔잔한 물이 깊다, 말없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깊다.) 임신 20주 또는 28주후 태아가 사망하면 사산(死産)이라 하는데, 영어로 stillbir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체로 태어난 사산아는 stillborn baby라 하는데, 움직이지 않기때문입니다. ■

과테말라 선교

마야인의 친구 선교사

김장숙

First Nations
Community Health-
Source치과의사
/목사사모

“이 소년은 13 살 이에요. 위의 송곳니가 잇몸 밖으로 나와서 빼달라고 하는데 엄마를 불러줄 수 있나요?” 나는 스페니쉬를 할 줄 모르므로 통역이 필요하였다. 나를 도와주는 현지인 ‘힐’은 영어를 할 줄 모르므로 나를 말뚝 말뚝 쳐다보았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임시로 진료소가 된 교회 안은 분주하였다. 입구 쪽에 책상을 놓고 접수하여 건물 안의 사람을 조정해주었다, 한방과 초음파 진료는 비닐 커튼으로 막고 나무로 만든 임시 진료 침대들을 사용한다. 이번에 처음 시작한 초음파 진료는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줄서서 앉아서 기다린다. 다른 한 쪽에는 약국과 내과 상담진료 테이블이 놓여있다. 스페니쉬를 잘 하시는 안명수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셨다. 나는 코스코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소리를 쳐서 부를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안명수선교사님께 달려가 통역을 부탁하였다.

우리 팀에는 치과의사가 두명이었다. 나는 발치를 하기로 하고, 다른 분은 충치 치료를 하기로 서로 분야를 나누었다. 충치 치료를 맡은 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치과의를 하다가 미국에 오신 분이므로 스페니쉬가 모국어이다. 그러므로 자상하게 물어보고 챙겨가며 진료하는데 나는 언어소통이 안되니 속수무책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의료 혜택이 없는 곳에 찾아왔다. 직항 비행기를 5 시간에 걸쳐 타고 한 밤중에 과테말라 시티에 도착하였다. 짐을 찾아 숙소로 정해준 선교관에서 짧은 잠을 자고서는 12 시간 좁은 버스에 앉아서 우에우에페낭고로 이동하였다. 안명수 선교사님을 돕는 목적으로 단기 의료선교를 왔으

므로 당연히 그의 선교지를 간다. 그는 과테말라에서도 그야말로 외곽지대인 멕시코 국경 근처인 북서부 지역, 산속의 마야 인디언 지역에서 37 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신 분이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잘 잤다. 다시 이동하여 마침내 목적지 라스 팔마스에 도착하여 오후 진료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감내하고 왔는데 언어소통이 잘 안되니 따뜻한 말 한 마디도 해 줄 수가 없다. 대부분의 발치 환자는 치아가 아프니까 빼달라고 하거나 송곳니가 영뚱한 곳에 위치해있으니 빼달라고 하니 나도 하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그러나 다른 대안을 쉽게 제공할 수 없기에 설명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의 진료를 하는 것일까?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보고 혜택을주고 싶는데 항상 통역이 필요해서 기다라는 시간이 많다. 말이 안통하는 현지인 도우미와 현지인 환자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이해가 되었는지 난감하다. 이젠 나도 정말로 스페니쉬를 배워야 하겠다.

보호자가 있어야 이를 빼 주겠다는 말에 선교사님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에서는 13 살이면 장가가고 애기를 낳는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마침 그 때에 엄마가 초음파 진료를 끝내고 왔으므로 이 빼는 것을 원하는지 확인을 하고 해주었다.

선교사님은 30 살이 된 한 형제가 자기 손자들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다며 그들의 문화를 또 설명하였다. 그는 호기심이나 신기한 별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것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는 마야인

의 친구가 된 분이다. 2000년인가 KBS 특집 드라마 제 1 편으로 “마야인의 친구가 된 선교사” 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방영이 되었다. 그가 산 속의 작은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약장수처럼 약기를 연주하여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상처를 소독하고, 아픈 긴급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하던 그의 일상을 소개하였다.

LA 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알래스카 밤 비행기를 이용하였다. 우리 팀 전부는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그의 집에 도착하여 짜장면과 짬뽕, 그리고 탕수육을 시켜서 먹은 후에 평가회를 했다. 선교사님은 저녁도 안 드시고 주무신다 하더니 평가회 중간에 들어오셨다. 간염을 알아서 어렵게 치료를 받고 완쾌된 경력이 있는 그는 피곤하면 무조건 잠으로 쉬어 달래야 한다.

그는 부엌을 통해서 거실의 모임장으로 나타났는데 나는 왜 그가 침대가 있는 다른 방이 아닌 부엌으로부터 나오는 지 안다. 몇 년 전인가, 처음으로 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부엌으로 가면 조그만 골방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이 겨우 발 뺀고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작은 앉은뱅이 책상과 이부자리가 있었다. 그때가 10 년도 더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달라졌는지도 모른다. 그 때도 그는 부엌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마야인의 친구”가 되기까지 그는 마야 원주민의 집을 방문하여 자게되면 그들의 부엌 화로 옆에 누워서 잤다. 결국은 이러한 동격화된 그의 삶의 태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인 것이

<21페이지로 계속>

수필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최현지

알버커키감리교회 /성도

요즘 저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챙기고, 낮에는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저녁에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엄마와 아내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남편의 일을 돕고, 때로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루가 끝나면 마음도 몸도 분주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회계와 감사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숫자와 결과, 기록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어떤 결과가 남는지, 무엇이 정확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봉사도 마음속으로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 무엇이 남을까?”

“이 시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에 비해 너무 비효율적인 것은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예전의 저는 “봉사”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수입을 만들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굳이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정과 일터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도 많은데, 왜 또 시간을 내어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마음에 조금씩 다른 깨달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손을 내미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던 중 요한일서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8)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믿음은 결국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장부는 세상의 장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장부에는 수입과 비용, 손익과 성과가 기록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부에는 사랑으로 드린 시간, 보이지 않는 섬김, 누군가를 살린 따뜻한 말, 지친 사람 곁에 머물러 준 마음도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숫자로는 남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에 남고 공동체 안에 남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할

<22페이지로 계속>

마야인의 친구 선교사

<20페이지에서 계속>

다. 나의 추측은 그는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집에서도 산 속의 마야 원주민과 함께 지내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코비드가 한참일 때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다. 그가 산속의 선교지에 아무 준비도 없이 들어갔는데 약도, 옷도 모자랄텐데 출입이 금지되어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는그 기간 7 개월 동안

에 그 곳 마을에 다니면서 악기들을 주민들에게 가르쳐서 그들 자체에서 밴드 악단이 생겨나도록 기여한다. 그는 고등학교 밴드부 출신이라서 거의 모든 악기를 다룰 줄 안다. 아마도 그는 신이나서 산 속의 마을에서 살았을 것이다. 법으로 보장 받은 ‘집으로부터의 휴가’ 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남편과 살아낸 사모님의 삶도 기록하지 않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뉴욕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둘째 딸이 작년에 이어 올 해

에도 함께 와서 일했다. 훌륭하다.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랴, 선교사님을 챙기랴 얼마나 애쓰셨을 지 짐작이 간다.

모두가 각자 자기의 길을 가면서 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어쩌면 인생의 끝 날 까지 살아야 하는, 감내해 나가는 천로역정이 선교사님의 인생이요, 사모님의 인생이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네 인생이 이러하지 않겠는가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손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21페이지에서 계속>

내가 있는 자리에서...

때, 눈에 보이는 큰 역할을 먼저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는 자리,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자리, 분명한 성과가 보이는 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을 세우는 힘은 꼭 큰 무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고 조용한 책임들 안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세워집니다. 아이의 아침을 챙기는 일, 가족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는 일,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일,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한 자리를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충성들이 모여 한 가정을 세우고, 한 공동체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어 준다고 믿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두 세계 사이에서 사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정서와 언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마음 깊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미국 사회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관계를 맺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갑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뿌리를 알려 주고 싶지만, 아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도 이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 줄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이 거창한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답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작은 만남에서부터,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에서부터 말입니다.

사랑은 꼭 큰 봉사나 특별한 사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들어 주는 것, 지친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가족을 위해 반복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도 사랑의 섬김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일터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하는 것,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누군가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작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사는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안부, 작은 도움, 함께하는 시간, 누군가를 기억해 주는 마음이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봉사를 “내 시간을 빼앗기는 일”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봉사는 사랑을 나누는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묻게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줄까?”
보다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같은 자리로 부르시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끌도록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돕도록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큰 행사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지치지 않도록 곁을 지켜 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제 역할이 “돕는 자리”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일을 도울 때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돕는 자리가 작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돕는 자리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ですよ.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키는 자리, 무너질 수 있는 곳을 조용히 받쳐 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도 그런 작은 자리들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한국어어를 가르치고, 누군가는 어르신들을 챙기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특별한 몇 사람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마음을 내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한 번의 안부 전화, 한 번의 방문, 한 점시의 음식, 한 번의 격려, 한 아이에게 건넨 한국말 한마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이런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되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책임이 있고, 때로는 마음의 여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한다”는 부담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모두가 먼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감당하고 있는 일들 안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애쓰는 자리도, 정직하게 일하는 자리도, 가족을 위해 조용히 희생하는 자리도, 믿음을 지키

<23 페이지로 계속 >

제3의 삶

<8 페이지에서 계속 >

공동 사회의 표현의 출구였던 제3의 장소가 점차 사라짐으로써 실제의 생활에서 벌어지는 붕괴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한 나머지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 모두가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삶과 건강의 특성을 눈여겨 보면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사교 생활임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양극으로 갈라지고 의견이 분열되며 대립적이고 사상이나 생각이 편향된 사회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든, 우연히 부딪치는 사람에게 말을 걸든, 정규적인 외출로 사교를 하든 의도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근자에 와서 채널러가 그 삶의 방식을 ‘제3의 삶 Third lives’ 이라 부르자고 제안했다.

제3의 장소가 사라지는 현상이 비단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자연 환경의 생태적 위기에다 사회 환경의 도덕적 위기까지 겹치면 살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3의 삶을 선택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

내가 있는 자리에서....

<22 페이지에서 계속>

기 위해 다시 마음을 붙드는 자리도 모두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사랑이 결국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 가는 중입니다. 늘 잘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좁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게 주어진 자리로 돌아가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9 페이지에서 계속 >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살리려 함입니다. 죄의 결과로 아픔을 겪을지라도, 회개하며 앞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디디야’의 은혜를 예비해 두십니다. 오늘 그 준엄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가식을 벗고 진실하게 앞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 내 영혼의 나단 앞에 서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해 제 삶의 거울을 비추어 봅니다. 성군이라 불리던 다윗조차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처럼, 혹시 저 또한 남의 허물에는 분노하면서 정작 내 안의 커다란 들보는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의 무더진 양심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돌아오길 기다리며 침묵하셨으나,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죄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제 삶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진 채, 그저 익숙한 관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셨던 나단의 외침이 오늘 제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변명과 핑계 뒤에 숨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의 것을 탐내거나 더 가지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제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죄의 결과는 뼈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다윗에게 ‘여디디야’라는 사랑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합니다.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것이 저를 멸망시키려는 채찍이 아니라 다시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게 하옵소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사랑하셔서 침묵 속에서 기다리시고, 때로는 아픈 책망으로 저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삶은 멀리 있는 큰 사명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웃과 공동체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신실함을 선택할 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 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조용하지만 신실하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글: 최현지, CIA, CGFM / 뉴멕시코 한인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

주일예배 대표 기도문

이현숙

권사
알버커키감리교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전에 불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 여러가지 삶의 무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말씀 하신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만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속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치 못하였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염려 하며 살았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 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사 정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려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계획과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시니” 라는 말씀처럼 저희의 모든 계획과 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의 내 딛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

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는 오순절과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이 또한 감리교 운동의 결정적 사건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하여 경험했던 성령체험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화목케 하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실천하고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을 겪은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이들이 기도를 통해 치유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원망이 감사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며 부모들은 주

의 훈계와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어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계획 하신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 하시려 세계 곳곳에 흩어져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5/24/2026



Korean Churches in NM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 오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알버커키 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1:15 p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a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15분전에 찬양 시작)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 88005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목회장: 김지수 전례부장: 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소공동체 (화, 오전), 성령기도회 (수, 저녁)
기도회: (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추석근 목사 (714) 213-9627

주일예배 1부 시간 :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1:45pm

수요모임 11:30am

아침기도회: 7:00am (월, 화, 목, 금)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업데이트 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eur
1649 Bridge Blvd. SW
Albuquerque, NM87105
(505) 247-2525

Stadium Liqueu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RIMOMN PC
500 Marquette Avenue NW,
Suite 1200
Albuquerque NM 87102
(505)437-2220
youngjun.roh@rimonlaw.
com

부동산 Realtors

윤혜영 Hye Young Yoon
My-A Realty
(917-862-1782)

에라 차베스 Etta Chavez
Coldwel Banker Legacy
(505-720-2477)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전용배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식당 Restarant

꼬끼오 코리언 치킨
Kokio Korean Fried Chicken
8019 Menaul Blvd Suite A
ABQ(505-308-3179)
Website:kokioabqnm.com

김스마켓
Kim's Oriental Market
(마켓 부속 식당 한식,중식)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아리랑 식당
Arirang Market
(마켓 부속 식당)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스시벅스 (일식,한식,스시)
Sushibucks
2106 Central Ave. SE
Ste.A (UNM 앞)
ABQ (505)243-8089

아시아네페어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D
ABQ (505)766-9405
Website:
asianpearabq.com

이찌반 식당
Ichiban Japanese Restau-
rant (한식, 일식)
10701 Coors Rd NW
ABQ (505-485-3737)
Website:ichibanabq.com

사쿠라 스시 엔드 그릴
Sakura Sushi and Grill
일식 한식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케이 스타일 키친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

사무라이 그릴 엔드 스시바
Samurai Grill & Sushi Bar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Website:
www.abqsamurai.com

쇼건
Shogun (일식 스시)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Website:
www.shogunabq.com

한미 (한식 중식)
Hanmi Korean Chinese
Fusion
2120 Juan Yabo Blvd. NE
ABQ NM 87112
(505-717-1287)

식품점 Korean Grocery

에이원 한국 식품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아리랑 오리엔탈 마켓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김스 오리엔탈 마켓
Kim's Oriental Market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약국

(Compounding Pharmacy)
Pharmacy on the Bosque
(김미정)
6341 Riverside Plaza Lane,
NW, Suite B,
Albuquerque, NM 87120
505-546-9217
(fax: 505-944-9320)
www.potbrx.com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웹사이트:thegaragenm.com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505-323-7700)

Dr. 제임스 구
James Ku Albuquerque
General Dentistry
9316 Montgomery Blvd.NE
Albuquerque, NM 87111
(505-800-5050)
웹사이트: jameskudds.com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제임스 박)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업데이트 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화원/원예 Nursery

오수나 너서리 (묘목, 화초)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r-
querque NM 87113
(505-345-6644)
웹사이트:
www.osunanursery.com

회계사 ACC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al Clinic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
523-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 & 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
527-0098)

로스루나스 Los Lunas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SE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웹사이트:
dentistloslunas.com

로스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 (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식당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NM
(505-820-2126)
박성희/신숙희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rupe St.
Santa Fe
(505-470-1561) Hee Joo

미용/건강 Beauty/Health

Atomy (atom美)
505-570-0092
최리안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화밍톤 Farmington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클로비스 Clovis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쇼건 스테이크 하우스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
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
부
(575)-762-1900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6년 7/8월호 발행일 : 2026.7.4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발행처: 알버커키감리교회 사회 문화부
Korean-American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Website: Voice.KumcABQ.com

PHARMACY ON THE BOSQUE
보스케약국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약학박사

COMPOUNDING PHARMACY

10:00 am - 1:30 pm, 2:00 pm - 5:00pm (Mon-Fri)
 전화 : (505) 546-9217

Email: infopotbrx@gmail.com
 Website: https://www.potbrx.com
 Facebook: Pharmacy on the Bosque



6341 Riverside Plaza Lane, NW, Suite B
 Albuquerque, NM 87120

ETTA CHAVEZ
애라 차베스

REALTOR Associate Broker 

Cell: 505-720-2477
 Office: 505-898-2700
 Realty@EttaChavez.com
 EChavez.cblegacy.com
 10300 Cottonwood Park NW
 Albuquerque, NM 87114





 **ICHIBAN**
Japanese Restaurant

Sushi • Japanese Favorites • Korean Dishes

Dine In • Take Out



10701 Corrales Rd Ste 18,
 Albuquerque, NM 87114

505-485-3737

ichibanabq.com
 Scan for Website

HOURS

Mon	Closed
Tue-Wed	11:30 AM-8 PM
Thu-Sat	11:30 AM-8:30 PM
Sun	12-7 PM

Fresh Ingredients. Authentic Taste. Made with Heart. 

광고 안내

후면표지는 비즈니스
 유료광고란으로 이용하
 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야의 소리 이
 페이지에서 아래 링크
 를 클릭하셔서(voice.
kumcabq.com/2026-0708/AD.html) 지원방
 법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메일
 VOICEofNM@gmail.
 com 주소로 주시면 도
 와드리겠습니다.

7-8월의 화단 관리 팁(Tips)

7월(July)

- 여름 내내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원에 꽃이 피는 일년생 식물과 다년생 식물을 계속 심습니다.
- 저수량(Low-water), 건조정원(Xeric landscape)을 위해 토종 나무, 관목, 다년생 식물을 심어보세요.
- 붓꽃(Iris)과 원추리(Daylily)를 심으세요.
- 조경과 정원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퇴비로 만들기 위해 생물학적 방제와 통합 해충 관리를 시도하세요.
- 반복해서 꽃이 피도록 장미와 꽃 피는 식물에서 시든 꽃을 계속 제거하세요.
- 수분을 보존하고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뿌리 덮개를 새로 고치세요.
- 봄 꽃 관목의 가지치기를 한 달 중순에 완료했는지 확인하세요.

8월(August)

- 여름부터 가을까지 정원에 다채로운 색감을 더하기 위해 한해살이 꽃과 다년생 꽃을 계속 심으세요.
- 장미와 꽃이 피는 식물의 시든 꽃잎을 계속 제거하여 다음 개화를 촉진하세요.
- 수분 유지와 잡초 억제를 위해 필요에 따라 멀칭(mulching)을 새로 해주세요.
- 붓꽃(Iris), 작약(Peonies, 모란), 기타 봄 구근과 뿌리줄기는 2년 이상 심었고 좋은 교회 좋은 가정



Hibiscus



Iris



Daylily



Peony

참조: 오수나너서리 웹사이트(www.osunanursery.com/july)